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白話) 수용 양상*

김수영**

1. 머리말
2. 연의소설 독서 경험의 전용(轉用): <천군기>(天君紀)
3. 새로운 문체를 위한 실험: <심생전>(沈生傳)
4. 구어(口語)의 기분을 내기 위한 수용: <장수과전>(張守果傳)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白話) 수용을 황중윤(黃中允)의 <천군기>(天君紀), 이옥(李錫)의 <심생전>(沈生傳), 이현기(李玄綺)의 <장수과전>(張守果傳)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백화 수용의 몇 가지 주요 국면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천군기>는 주로 대사(代詞)와 조사(助詞)를 활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백화를 수용하였다. <천군기>의 백화 수용 양상은 작가 황중윤이 중국의 연의소설(演義小說)을 탐독하고 그 제반 형식을 전용(轉用)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심생전>은 주로 두 자(字)로 된 단어를 활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백화를 수용하였다. <심생전>의 백화 수용 양상은 한국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전통과 그 장르적 규범에 제약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또한 <심생전>에 구사

* 이 논문은 201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음.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된 백화는 작가 이옥이 추구한 새로운 문체 실험의 일환으로서 해석되었다.

<장수과전>은 고문보다 백화가 주가 된다고 할 만큼, 비교적 전면적인 방식으로 백화를 수용하였다. <장수과전>의 백화 수용 양상은 작가 이현기가 야담계소설(野談系小說) 특유의 구어적 기분을 좀더 내기 위하여 백화 문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 수용은 17세기 전반기에 시작되어 19세기까지 이어졌다.

둘째,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 수용은 연의소설, 전기소설, 야담계소설 장르 모두에서 나타났다.

셋째, 조선 후기 소설에서 백화 수용의 ‘양상’과 ‘수준’은, 작가의 개성과 역량에 의해, 아울러 각 소설 장르의 전통과 규범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핵심어 : 백화(白話), 문언(文言), 고문(古文), 천군기(天君紀), 심생전(沈生傳), 장수과전(張守果傳)

1. 머리말

‘백화’(白話)란 중국어의 구어(口語)를 뜻한다. 중국에서 백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이르러서이다. 5·4 문학혁명의 주역인 후스(胡適, 1891-1962)는 글쓰기의 ‘언문일치’(言文一致)를 주장하였다. 그는 ‘문언’(文言)과 ‘백화’로 양분되어 온 중국 글쓰기의 체계를 백화 중심으로 통일할 것을 주장하였다.¹⁾ 오늘날 중국에서 통용되는 백화 중

1) 후스(胡適)는 ‘백화’(白話)라는 용어의 ‘백’(白)에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그 하나는 무대 위에서 쓰는 대화로서의 ‘백’(白)으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말이라는 뜻이다. 그 둘은 ‘청백’(清白)이라고 할 때의 ‘백’(白)으로 꾸밈을 가하지 않은 말이라는 뜻이다. 그 셋은 ‘명백’(明白)하다고 할 때의 ‘백’(白)으로 분명하고 유창한 말이라는 뜻이

심의 이른바 ‘표준국어’는 그러한 논의 결과 탄생한 20세기의 제도적 산물이다.²⁾

그렇지만 근대의 제도 개혁 이전에도 백화는 중국 문헌에서 사용되었다. 이를 보면 당대(唐代)의 선종(禪宗)이나 송대(宋代)의 유학(儒學) 분야 ‘어록’(語錄)에서 백화의 구사가 확인된다. 무엇보다 명청대(明清代)에 이르러서는 ‘소설’ 장르에서 백화가 문언을 압도하기 시작하였다. 잘 알다시피 <수호전>(水滸傳)과 <홍루몽>(紅樓夢) 같은 중국 장편소설의 명편(名篇)들이 백화소설이다.

본고의 관심은 중국 글쓰기 내부의 이러한 변화가 조선 후기 소설의 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어떠한 양상으로 수용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조선의 문인들이 본격적으로 백화를 접한 시기는 중국의 백화소설이 조선에 대거 유입되기 시작한 16세기 이후로 추정된다.³⁾ 그런데 당대 조선인에게 백화는 구어가 아니라 ‘낯선 문언’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많은 문인들이 중국의 백화소설을 열독(熱讀)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조선 후기에 창작된 소설 중 백화가 본격적으로 구사된 작품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 하나, 당대의 문제적이고도 예민한 작가들이 창작한 일부 작품에서 백화의 구사가 보여 주목된다. 이 경우 조선의 작가들은 중국과는 다른 여건에서 좀더 ‘자각적으로’ 백화를 구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 수용 양상을 황중윤(黃中允)의 <천군기>(天君紀), 이옥(李錫)의 <심생전>(沈生傳), 이현기(李玄綺)의 <장수과전>(張守果傳)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소설의 문체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던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다. 그런 한편 이 작품들은 각각 연의소설(演義小說), 전기소설(傳奇小說), 야담계소설(野談

다. 후스의 이 견해는 광의(廣義)의 백화에 대한 규정으로서, 백화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해석으로 생각된다. 후스(胡適), 『백화문학사』(강필림 역, 태학사, 2012), 28면 참조.

2) 무라타 유지로(村田雄二郎), 『문언·백화를 넘어서』, 『흔들리는 언어들』(임형택·한기형 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127~147면 참조. 이 글은 애초 일본의 잡지인 『思想』 1995년 7월호에 『文白の彼方に』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3) 윤세춘,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 유입과 향유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5(민족문학사학회, 2005), 134~161면 참조.

系小說)이라는 다른 장르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 세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는 복합적이고도 다층적인 조선 후기 소설의 언어 지형 속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작가가 각기 다른 문법의 소설 장르에서 백화를 어떻게 수용하였으며 그것이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의미 있게 비교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⁴⁾

아무쪼록 본고의 논의가 조선 후기 한문소설 문체의 일면을 새롭게 밝히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 연의소설 독서 경험의 전용(轉用): <천군기>(天君紀)

조선 후기에 창작된 소설 가운데 이른 시기에 백화를 수용한 작품으로, 17세기 전반기에 황중윤(黃中允, 1577-1648)이 창작한 <천군기>(天君紀)가 주목된다. <천군기>는 ‘육망’이라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 탐구한 장편 연의소설이다. 이 작품은 알레고리를 활용하여 성리학적(性理學的) 심성론(心性論)을 서사화한 ‘천군서사’(天君敍事)의 대표작이다.⁵⁾

<천군기>는 세 가지 형태의 자료로 존재한다.⁶⁾ 그 중 완성본에 해당하는 장회본(章回本) <천군기>에는 1633년에 작성된 작가의 자서(自序)가 있다.⁷⁾ 그러므로 <천군기>는 1633년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4) 선행 연구들이 대체로 조선 후기 한문소설에서 ‘백화가 구사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였다면, 본고는 이에서 좀더 나아가 ‘어떠한 양상과 수준으로 백화가 구사되었는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 점에서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세 작품은 모두 작가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고, 작가의 창작의식을 탐구하는 데 참조가 될 만한 자료가 현전하므로, 작가에 의해 ‘자각적으로’ 백화가 구사된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기에 적합하다. 그런 한편 이 세 작품은 각각 다른 역사적 장르에 속하면서 17세기 전반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의 다른 시기에 창작된바, 백화 수용의 몇 가지 ‘주요 국면’을 잘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세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백화를 수용한 조선 후기의 모든 소설을 다 거론하지 않는다.

5) ‘천군서사’(天君敍事)의 개념에 대해서는 김수영, 『<天君紀> 研究』(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0면 참조.

6) 현전하는 <천군기>는 ‘초고본’(草稿本), ‘수정본’(修訂本), ‘장회본’(章回本)의 세 가지 형태이다. 위의 논문, 35~39면 참조.

국 고전소설사에서 장편소설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시기가 17세기 후반임을 고려할 때, <천군기>의 등장은 시대를 조금 앞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이처럼 <천군기>는 주제상으로나 형식상으로 한국 고전소설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인데, 백화의 수용에 있어서도 선구적 면모를 보여 주목된다.

<천군기>에서 백화가 수용된 양상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보자. 문체에 유의해야 하므로 원문을 먼저 제시하고, 번역문을 그 아래에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天君政窘步顛仆，有一黑衣的人，向前拜曰：“臣姓黑，名恬，乃酣眠國睡鄉人也。聞君播越，敢來引駕耳。”天君曰：“然則汝欲引向何方乎？”對曰：“臣之睡鄉，寔酣眠國之最幽處也。與華胥國接境，風日不到，別一乾坤，實莊周所謂‘混沌之鄉、盤古之野’也。望天君亟入毋疑，當高枕無虞矣！”天君遂從黑恬，投酣眠國睡鄉去了。

천군이 마침 켄걸음으로 가다 넘어졌는데 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앞으로 와 절하며 말했다.

“신(臣)의 성은 흑(黑)이고 이름은 침(恬)으로 감면국(酣眠國) 수향(睡鄉) 사람입니다. 주상께서 과천(播遷)하신다는 말을 듣고 모셔 가고자 감히 왔습니다.”

천군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신(臣)이 사는 수향은 감면국의 가장 깊은 곳입니다. 화서국(華胥國)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바람과 해가 들지 않는 하나의 별세계이니 참으로 장주(莊周)가 말한 ‘혼돈(混沌)의 고을, 반고(盤古)의 들’입니다. 바라건대 천군께서는 의심 마시고 어서 들어가셔서, 마땅히 베개를 높이 베시고 아무 근심 마소서!”

천군은 마침내 흑침을 따라 감면국 수향으로 갔다.⁸⁾

7) 1633년 음력 8월 15일에 작성되었다.

8) 원문은 황중윤, 장회본(章回本) <天君紀>, 『逸史』(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장12뒤~장13앞.

인용문은 <천군기> 제15회의 앞부분이다.⁹⁾ 천군(天君: 마음을 뜻함)은 본래 덕이 높은 임금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으나, 월백(越白: 미인을 뜻함)과 환백(歡伯: 술을 뜻함)이라는 적군의 협공에 무너져 전투에서 대패하고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다. 그때 마침 흑침(黑晡: 단잠을 뜻함)이라는 인물이 나타나 잠면국(酣眠國: 잠의 나라)에 있는 수향(睡鄉: 잠의 마을)으로 천군을 인도한다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다.

문체에 유의하여 보면, 인용문 중의 “的”과 “了”가 모두 백화에 해당되는 글자이다. 먼저 “有一黑衣的人”(검은 옷을 입은 한 사람)에 보이는 ‘的’은 조사(助詞)로서 한정어와 중심어의 관계가 일반적인 수식 관계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고문(古文)¹⁰⁾에서는 대개 ‘之’를 쓰는데, 이 구절에서는 ‘的’이 사용되었다. 제7회의 “多少紅衣的人”, 제8회의 “眞平生不見的摸樣” 등에서도 이와 같은 용례가 보인다.

다음으로 “天君遂從黑晡, 投酣眠國睡鄉去了”(천군은 마침내 흑침을 따라 잠면국 수향으로 갔다)에 보이는 ‘了’는 조사로서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쓰여 동작 또는 변화가 이미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조사로서의 ‘了’는 고문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인데, <천군기>에서는 십여 개의 용례가 보인다. 제15회의 “亦時玩胡蝶之飛揚栩栩然, 忘機自足爲過了時月”, 제24회의 “放了喜氏等三將軍”, 제25회의 “延至日暮, 過了初更”, 제27회의 “今日果克了勁敵, 以成不拔之功” 등이 그것이다. <천군기>가 장편소설임을 고려하면 작중에서 ‘了’가 그리 빈번히 쓰인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당대나 그 이전에 창작된 다른 소설에서 이와 같은 뚜렷한 사례가 달리 발견되지 않으므로, 간과할 수 없는 의미있는 표지(標識)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천군기>에 보이는 “這”, “那”, “箇”와 같은 글자도 모두 백화에 해당된다. 차례대로 그 기능과 용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這’는 ‘이’, ‘이것’과 같이 발화자로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사

9) <천군기>는 총31회의 장회(章回)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분은 작품의 중반부에 해당된다.

10) 앞에서 말했듯이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백화는 구어로 여겨질 수 없었으며, 또하나의 ‘낮선 문언’으로 여겨졌다. 이 점에 유의하여 본고에서는 ‘백화’에 대립되는 전통적인 고전 문언을 ‘고문’(古文)으로 부르기로 한다.

(代詞)이다. 예를 들면 제5회에서 “這一人是誰? 乃寵樂侯慾生者也”(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총각후 욕생이란 자이다)와 같이 사용되었다. 고문에서는 이런 경우 대개 ‘此’를 쓴다. 다음으로 ‘那’는 ‘저’, ‘저것’과 같이 발화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대사이다. 예를 들면 제25회에서 “那二將是建威將軍怒氏, 督過將軍惡氏也”(저 두 장군은 권위장군 노씨와 독과장군 오씨이다)와 같이 사용되었다. 고문에서의 ‘彼’와 의미상 통한다. 그 다음으로 ‘箇’는 ‘~명’, ‘~개’ 등으로 쓰이는 양사(量詞)이다. 예를 들면 제11회에서 “這二人本兄弟也, 一箇名曰大腸, 一箇名曰小腸”(이 두 사람은 본래 형제이니, 한 사람의 이름은 대장이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소장이다)과 같이 사용되었다. 고문에서는 양사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상에서 고찰하였듯이, <천군기>는 주로 조사, 대사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백화를 혼입(混入)하고 있다. 물론 <천군기>의 문체 전반에서 주(主)가 되는 것은 여전히 고문이지만, <천군기>에 보이는 백화가 작가 황중윤의 자각적인 수용의 결과였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황중윤은 어떻게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되었을까? 이 물음을 풀기 위한 실마리를 <천군기>의 서문 뒤에 이어지는 『일사목록해』(逸史目錄解)라는 글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이 그것이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천군기>를 왜 썼습니까?”

“나의 반생(半生)이 어지러워 길을 잃은 것을 개탄하여, 고삐를 돌려 길을 돌아오고자 하는 말을 담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사’(逸史)라 하고, 각각 나누어서 제목을 붙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장회체 형식-인용자)은 사가(史家)의 연의(衍義)의 방법을 본뜬 것입니다. 일찍이 <열국지연의>(列國誌衍義), <초한연의>(楚漢衍義)와 <동한연의>(東漢衍義), <삼국지연의>(三國志衍義), <당서연의>(唐書衍義)와 <송사연의>(宋史衍義), <황명영열전연의>(皇明英烈傳衍義) 등의

제사(諸史)를 보면, 모두 목록을 만들어 제목을 따로 붙였더군요(…).”¹¹⁾

인용문은 『일사목록해』의 앞부분이다.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글은 작가가 ‘일사’(逸史)라는 제목의 이 책에 ‘목록’(目錄)을 붙인 이유에 대하여 문답(問答)의 형식을 빌려 독자에게 해명하는 글이다. 여기서 ‘일사’는 <천군기>의 표제(表題)에 해당하고, ‘목록’은 총31회의 장회(章回)를 지칭한다. <천군기>는 한국의 고전소설 가운데 선구적으로 장회체 형식을 도입한 작품이다.¹²⁾ 이에 작가는 『일사목록해』를 통해 장회체라는 새로운 형식의 기능과 의의를 설명하고, 이것을 선구적으로 도입한 데 대한 자부(自負) 또한 어느 정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용문에서 거론한 <열국지연의>(列國誌衍義), <초한연의>(楚漢衍義), <삼국지연의>(三國志衍義) 등의 작품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들은 중국의 연의 소설로서, 장회체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백화가 구사된 작품들이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황중윤은 중국의 연의소설을 탐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한 연의소설의 ‘장회체 형식’과 ‘백화 문체’ 등을 <천군기>의 창작에 전용(轉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천군기>에 혼입된 백화는 연의소설 형식의 일부분으로서 수용된 것으로 생각된다.¹³⁾

11) “或問於余曰：‘<天君紀>，何爲而作也?’ 曰：‘慨余之半生迷亂失道，而欲反轡復路之辭也。’ 曰：‘然則爲之逸史而各分爲題目者，何也?’ 曰：‘此效史家衍義之法也。嘗考諸<列國誌衍義>、<楚漢衍義>及<東漢衍義>、<三國志衍義>、<唐書衍義>及<宋史衍義>、<皇明英烈傳衍義>等諸史，則皆爲目錄以別其題(…)。’ 황중윤, 『逸史目錄解』, 『逸史』.

12) 김수영, 앞의 논문, 131~132면 참조.

13) <천군기>에 구사된 ‘의’나 ‘了’와 같은 백화의 경우, 이것이 혹 송학(宋學)의 ‘어록’(語錄)과 친연성을 갖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영남 남인(南人)에 속하는 황중윤의 학적(學的) 계보를 고려하였을 때, 그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천군기>에 구사된 백화는 중국 연의소설의 독서 경험이 전용(轉用)된 결과로 보는 편이 좀더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고찰하였듯이 황중윤 스스로가 『일사목록해』를 통해 <삼국지연의>를 비롯한 중국 연의 소설의 독서 경험이 <천군기>의 주요한 창작배경이 되었음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황중윤이 한국에서 아직 장편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17세기 전반기에, <천군기> 외에도 <사대기>(四代紀)와 <옥황기>(玉皇紀)와 같은 또다른 장편소설을 창작한 실험적이며 선구적인 ‘소설가’였다는 사실이 주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와 같은 황중윤의 시도를 단지 모방으로만 간주해서는 안 될 듯하다. <천군기>는 황중윤이 참조한 중국의 연의소설들과는 주제상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일종의 ‘철학소설’이기 때문이다. 황중윤은 16세기 이래 심화된 한국의 유교적 심성론(心性論)의 주제를 중국의 연의소설 형식과 결합시킴으로써, 그 이전까지 존재한 바 없는 새로운 유형의 장편 철학소설을 창작했다.¹⁴⁾ 이 점에서 <천군기>에 수용된 백화는 중국 연의소설의 풍부한 독서경험이 창조적으로 전용된 사례로 보인다.

3. 새로운 문체를 위한 실험: <심생전>(沈生傳)

다음으로 고찰할 작품은 이옥(李 玉, 1760-1815)의 <심생전>(沈生傳)이다. 주지하듯이 이 작품은 신분이 다른 남녀의 사랑을 제재로 삼은 애정 전기소설(傳奇小說)이다. 가난한 양반가의 자제인 심생(沈生)과 부유한 중인가(中人家)의 외동딸이 비극적인 결말을 예견하면서도 운명적인 사랑을 좇다가 끝내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그 중심 내용이다.

<심생전>에서 백화가 수용된 양상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보자.

遂候人定往, 踰牆而入, 則初月淡黃, 見窗外花木頗雅整, 燈火炤牕紙甚亮. 靠壁依檐而坐, 屏息以俟. 室中有二梅香, 女則方低聲, 讀諺稗說, 嚶嚶如雛鶯聲. (….) 自是習爲常, 暮而往, 罷漏而還. 如是者二十日, 生猶不忘. (….) 第二十夕, 女忽自廳事後出, 繞壁而轉, 至于生所坐處. 生自黑影中, 突然起扶持之. 女少不驚, 低聲語曰: “郎莫是小廣通橋邂逅者耶? 妾固知郎之來已二十夜矣. 毋持我. 一出聲, 不復出矣. 若縱我, 我當開此戶以迎之. 速縱我.” 生以爲信, 却立而俟之. 女復逶迤而入, 既到其室, 呼姬鬢曰: “汝到媽媽許, 請朱錫大屈戌來. 夜甚黑, 令人生怕.”

심생은 마침내 인정(人定)¹⁵⁾을 기다려 가서 소녀의 집 담장을 넘어 들

14) 김수영, 앞의 논문, 135~141면 참조.

15) 인정(人定): 인정종(人定鐘)을 치는 때. 당시 매일 밤 10시 무렵에 종을 쳐 통행을 금

어갔다. 옅은 노란색 달이 막 떠오르는데 창밖의 꽃나무들이 꽤나 아담하였고, 등불은 창호지를 환히 비추고 있었다. 심생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처마에 의지하고 앉아 숨죽이고 때를 기다렸다. 방안에는 여중 두 사람이 있었고, 소녀는 소리를 낮추어 한글소설을 읽고 있었는데, 그 옛된 소리가 마치 찌꼬리 새끼가 지저귀는 듯했다. (…)

이때부터 이 일이 습관처럼 되어, 날이 저물면 소녀의 집에 갔다가 새벽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다. 20일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도 심생은 여전히 게으름 부리는 일이 없었다. (…)

20일째 밤이었다. 소녀는 홀연 대청마루 뒤로부터 벽을 따라 돌아 나와 심생이 앉아 있는 자리에 나타났다. 심생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쑥 일어나 소녀를 붙잡았다. 소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으며 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말했다.

“낭군은 소광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스무날 째 밤이군요. 이 손 좀 놓으세요. 제가 소릴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하시면 저쪽 뒷문을 열고 낭군을 맞이할게요. 어서 저를 놓으세요.”

심생이 이 말을 믿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소녀는 다시 벽을 따라 빙 돌아 들어가더니 방에 이르자 여중을 불러 말했다.

“너는 어머니께 가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를 달라고 해 가져오너라. 밤이 너무 캄캄해서 무섭구나.”¹⁶⁾

인용문은 <심생전>에서 가장 정취 있는 장면의 하나이다. 첫 눈에 반한 소녀의 집에 몰래 찾아와 스무 밤을 지새우는 심생의 애타는 마음, 그리고 그런 심생을 받아들이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소녀의 복잡하고도 착잡한 내면 심리가 절묘하게 그려져 있다.

그런데 인용문 중 짙게 표시된 단어들이 모두 백화에 해당된다. “梅香”

지하였다.

16) 원문은 이옥, <沈生傳>, 『完譯 李鉉全集 4』(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256~259면. 번역문은 이옥, <심생전>, 『사랑의 죽음』(박희병·정길수 역, 돌베개, 2007), 19~20면을 참조하되 인용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은 여종을 뜻하는 단어이고, “媽媽”는 어머니를 뜻하는 단어이며, “屈戌”은 ‘자물쇠’를 뜻하는 단어인데 모두 백화이다. 인용문에서 검토한 것 외에도 “姪鬢”(‘시녀’라는 뜻), “拴上”(‘묶다’, ‘매다’라는 뜻), “釘吊”(‘자물쇠’라는 뜻) 등의 백화가 작중에서 사용되었다.¹⁷⁾ 이처럼 <심생전>에서는 두 자(字)로 된 단어 위주로 백화가 구사되었다. 이와 같은 백화의 활용 방식은 주로 조사나 대사를 활용한 <천군기>의 경우와는 다른 방식이다. 즉, 작품 전반에서 대체로 고문의 문체를 따르되 그 중간중간에 ‘새롭고’[新], ‘기이한’[奇] 백화 어휘들을 간혹 툭툭 인입(引入)하는 식이다.

<심생전>에 보이는 전기소설 문체상의 이 작은 ‘균열’은, 이옥이라는 작가의 생애 및 창작 경향과 관련하여 좀더 깊이 음미되어야 할 듯하다. 잘 알다시피 이옥은 정조대(正祖代)에 시행된 문체반정(文體反正)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그는 1790년(정조 14) 증광(增廣) 생원시에 합격한 후, 성균관의 유생(儒生)으로 있었다. 그런데 1792년(정조 16)에 올린 응제문(應製文)의 문체가 ‘소설체’(小說體) 및 ‘소품체재’(小品體裁)로 지목되어 정조로부터 견책(譴責)을 받았다.¹⁸⁾ 그 후 1795년(정조 19)의 경과(京科)에서 또 문체의 문제점을 지적 받아 과거 응시를 금지당하는 ‘정거’(停擧) 처분을 받았으며, 곧이어 지방의 군적(軍籍)에 편입되는 ‘충군’(充軍)의 명을 받았다. 이듬해에 다시 별시(別試) 초시(初試)에서 방수(傍首)를 차지했으나, 문체로 인해 방말(傍末)에 붙여졌다. 그 후 1799년(정조 23)에 경상도 삼가현(三嘉縣)으로 유배되었으며, 해배 후에는 경기도 남양(南陽)에서 여생을 보냈

17) 정하영, 「『沈生傳』의 題材의 脈絡과 敘事方式」, 『고전문학연구』 18(한국고전문학회, 2000)의 312~313면에서, <심생전>에 “姪鬢”, “小衢衢”, “梅香”, “媽媽” 등의 백화 어휘가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이러한 양상을 중국 문학을 전범으로 삼고자 하였던 이옥의 창작태도와 관련하여 해석한 바 있다.

18) 『정조실록』(正祖實錄)에 이옥의 문체에 대한 정조의 비판이 다음과 같이 두 번 보인다. 정조 16년(1792) 10월 19일자 기사: “上謂大司成金方行曰: ‘泮試試券, 若有一涉於稗官雜記者, 雖滿篇珠玉, 黜置下考, 仍坻其名而停擧, 無所容貸. … 日昨儒生李鉦之應製句語, 純用小說, 士習極爲駭然. 方令同成均, 日課四六滿五十首, 頓革舊體, 然後許令赴科, 而此不過一儒生所關不大, 而至於垂紳正笏, 出入文淵之人, 亦多有依倣此體者, 寧不大可悶哉?’”; 정조 16년(1792) 10월 24일자 기사: “承政院以西學教授李相璵緘答啓, 敎曰: ‘日前見抄啓文臣南公轍對策, 引用稗官文字, 上齋生李鉦表作, 純倣小品體裁.’” 강조는 인용자의 것.

다.¹⁹⁾

이처럼 이옥은 문체로 인해 삶의 행로 자체가 크게 바뀌어 버린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 생애에 걸쳐 ‘새로운 글쓰기’를 추구하였다.²⁰⁾ 다음의 『이언』(俚言) 「일난」(一難)에 글쓰기에 대한 그의 남다른 관심이 잘 표명되어 있다.

대체로 논하여 보건대 만물(萬物)이란 만 가지 물건이니, 진실로 하나로 할 수 없거니와, 하나의 하늘이라 해도 하루도 같은 하늘이 없고, 하나의 땅이라 해도 한 곳도 같은 땅이 없다. 마치 천만 사람이 각자 천만 가지의 이름을 가졌고, 삼백 일(日)에 또한 스스로 삼백 가지의 하는 일이 있음과 같다. 오직 그와 같을 뿐이다. (...) 내가 이미 눈으로 봄이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다면 나는 진실로 인위적으로 글짓는 바가 있을 수 없다.²¹⁾

인용문에서 보듯 이옥은 만물 개개의 ‘개성’과 ‘다름’을 중시하며, 날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그 존재의 상(像)을 자연스럽게 그려낸 글이 좋은 글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글쓰기와 문체에 대해 뚜렷한 주관과 예민한 감각을 지녔던 이옥의 창작 경향을 고려할 때, <심생전>에 인입된 백화와 그 구사 수준은 ‘자각적으로’ 취택(取擇)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이옥이 명청(明清) 서적을 열독하였다는 사실도 <심생전>에 수용

19) 김영진, 『이옥 연구-가계와 교유, 명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8(한문교육학회, 2002), 341~365면; 이현우, 『이옥의 생애와 작품세계』, 『完譯 李鈺全集 1』(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10~33면 참조.

20) 이옥의 집안은 무반계(武班系)의 서족(庶族)으로, 그 당색은 실세(失勢)한 소북계였다. 그러므로 이옥은 출신 가문으로 보아 처음부터 벼슬길의 영화를 기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김영진, 앞의 논문, 341~350면 참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체로 인해 겪게 된 여러 고초에도 불구하고 그가 끈질기게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일은 가치 있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21) “蓋嘗論之，萬物者，萬物也，固不可以一之，而一天之天，亦無一日相同之天焉；一地之地，亦無一處相似之地焉。如千萬人，各自有千萬件姓名；三百日，另自有三百條事爲，惟是如是也。(...) 吾既目見，而其如是，如是也，則吾固不可以有所作矣。” 원문은 이옥, 「一難」, 『俚言』, 『完譯 李鈺全集 4』(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275면. 번역문은 「일난」, 『이언』, 『完譯 李鈺全集 2』(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406~407면을 참조하되 인용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된 백화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듯하다. 김영진 교수의 선행 연구에서 자세하게 밝혀졌듯이 이옥은 대단히 방대한 범위의 명칭 서적을 섭렵하였다.²²⁾ 이옥이 보았던 명칭 서적 중 백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크게 두 부류이다. 그 하나는 <수호전>, <금병매>, <육포단>(肉蒲團), <서상기>(西廂記), <모란정환혼기>(牡丹亭還魂記) 등의 소설·희곡류 서책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백화로 씌어졌다. 그 둘은 『한청문감』(漢淸文鑑)이라는 한어(漢語)·만주어 사전이다. 『한청문감』은 현존본이 많지 않은 희귀본으로, 역관들이 주로 보던 중국어 사전이다.²³⁾ 이와 같은 독서 경험을 통해 볼 때 이옥이 비교적 백화 글쓰기에 능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백화체 희곡인 <동상기>(東廂記)의 창작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상기>는 실화를 제재로 한 작품이다. 1791년(정조 15)에 정조는 가난한 백성들이 혼기(婚期)를 놓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한성 5부에 칙령을 내려 관(官)에서 혼인을 주선하게 하였다. 이에 한양의 이문동(里門洞)에 사는 김희집(金禧集)이라는 총각이 거평동(居平洞: 지금의 평동)에 사는 신덕빈(申德彬)의 서녀(庶女)와 성혼(成婚)하게 되었다. 정조는 그해 6월에 이덕무(李德懋)에게 명하여 이 사건의 전말을 전(傳)으로 기록하여 남기도록 하였다. 그 작품이 <김신부부전>(金申夫婦傳)이다.²⁴⁾ 그런데 당시 성균관 유생이었던 이옥이 그해 7월에 이 이야기를 접하고, <동상기>라는 백화체 희곡으로 재창작하였다.²⁵⁾

그렇다면 <동상기>에서 구사된 백화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2) 김영진, 『李鉉 문학과 淸朝 小品-신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고전문학연구』 23(한국고전학회, 2003), 356~362면; 김영진, 『朝鮮後期 淸朝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33~140면 참조.

23) 김영진, 『李鉉 문학과 淸朝 小品-신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361면.

24) 이덕무(李德懋), <김신부부전>(金申夫婦傳), 『靑莊館全書』 권20, 『韓國文集叢刊』 257.

25) 백화 문체에 초점을 두고 볼 때, <동상기>의 창작 시기가 정조에 의해 문체반정이 시작된 1792년 직전이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용수 교수가 주목할 만한 견해를 제기하였다. 문체반정에서 정조가 경계하고자 하였던 ‘소설체’ 및 ‘소품체’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화’였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용수, 『<동상기>의 성격과 조선후기 백화투 문제』, 『한문학보』 19(우리한문학회, 2008), 1004~1013면 참조.

金生: (….) 呀! 柴門外, 有人來索者. 是誰? (出門醮科) 呀! 原來洞內任掌到了. 你甚麼事, 叫俺麼?

任掌: 金道令, 火速將自己姓名本貫年歲錄與小的麼?

金生: 甚曲折? (….)

任掌: 漢城府甘結內, 五部內各洞老道令, 成冊報狀後, 自官家助婚, 不多日內完了婚姻者. 好也的, 好也的! 老道令丈家去了時節, 不可不償了俺好酒一杯哩!(作受名帖收去科)

김생(金生): (….) 아! 사립문 밖에 누가 찾아왔네. 누구시오? (문밖으로 나가 맞이한다.) 아, 동네 임장(任掌)님이 오셨네요. 무슨 일로 나를 부르세요?

임장(任掌): 김 도령, 빨리 자네의 성명(姓名), 본관(本貫), 나이를 적어 내게 주겠나?

김생(金生): 무슨 일이지요? (….)

임장: 한성부(漢城府) 공문에 오부(五部) 안의 각 동네 노도령의 명단을 책으로 엮어 보고하면, 관가에서 혼례를 도와 며칠 내에 혼인을 시켜 준다 하였소. 이 얼마나 좋소! 노도령이 장가 갈 시절이니 좋은 술 한 잔을 내게 대접하지 않을 수 없잖소! (명첩을 받아 거두어간다.)²⁶⁾

인용문은 <동상기> 제1절(折)의 한 부분이다. 관(官)에서 나이 많은 총각과 처녀의 혼인을 주선하라는 정조의 어명(御命)에 따라, 이문동의 임장(任掌)²⁷⁾이 김희집이라는 인물의 성명, 본관, 나이를 조사해 가는 장면이다. 인용문에서 보듯 <동상기>에서는 백화가 전면적으로 구사되었다. “的”, “了”와 같은 기본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문장의 종결사로 쓰이는 “麼”, “哩”와 같은 조사가 구사되었다. 또한 “你”라는 2인칭 대사의 활용도 보인다. 이 단어들은 모두 백화에 해당되는데, 비단 이 인용문만이 아니라 작품 전편에서 높은 빈도로 구사되었다.

그러므로 이옥은 <동상기>를 창작한 32세(1791년) 무렵 이미 비교적 자

26) 원문은 이옥, <東廂記>, 『完譯 李钰全集 4』, 297면. 번역문은 이옥, <동상기>, 『完譯 李钰全集 2』, 457~458면을 참조하되 인용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27) ‘임장’(任掌)은 조선시대에 마을에서 공공의 사무를 맡아 보던 사역(使役)을 통틀어 부른 말이다.

유자재로 백화를 구사할 수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심생전>의 경우, 그 창작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심생전>의 논란 부에서 풍몽룡(馮夢龍, 1571-1645)의 『정사』(情史)가 중요하게 언급된 점으로 보아, 이옥이 <심생전>을 지을 당시 이미 명청대의 백화소설 및 소품들을 탐독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옥이 <동상기>에서 전면적으로 백화를 구사한 데 비하여, <심생전>에서는 두 자로 된 단어 위주로 제한적으로 백화를 구사한 까닭은 무엇일까? 한 작가에게서 보이는 이와 같은 백화 구사의 차별적 양상은, 창작 시기의 선후에 따른 문제라기보다는 장르와 관련하여 해명되어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본래 희곡은 백화 문학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르인 데 비하여, 전기소설은 문언(文言) 문학에 속하는 대표적인 장르이다. 특히 나말여초 이래 조선 후기까지 한국의 전기소설은 대체로 시와 산문의 창작에 두루 재능을 갖춘 빼어난 작가에 의해 고문(古文)으로 씌어졌다.²⁸⁾ 그 결과 한국의 전기소설은 다른 소설 장르에 비해 문체의 전아(典雅)함을 중시하였다. 아마도 이옥은 이와 같은 장르 규범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심생전>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한편으로는 전기소설의 장르 규범을 존중함으로써 그 특유의 곡진하고 섬려(纖麗)한 문체를 계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 백화를 인입함으로써 자기만의 새롭고 개성적인 문체를 추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²⁹⁾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심생전>에 수용된 백화는 조선 후기 전기소설 문체상의 작은 ‘균열’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옥이라는

28) 박희병 교수가 지적한 대로, 이 점은 한국 전기소설의 특수성에 해당한다. 중국의 경우 송대 이후 백화소설의 성행으로 문언소설인 전기소설의 지배적 지위가 상실된 데 비하여, 전근대 시기 한국의 한문학 담당층은 기본적으로 문언소설을 창작했다. 그 결과 중국과 달리 오히려 한국에서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전기소설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었다. 박희병, 『『金鰲新話』 創作의 淵源과 背景』, 『韓國 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179면 참조.

29) 필자는 <심생전> 창작 당시에 이옥이 이미 백화소설 및 소품들을 탐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제한적으로’ 백화를 사용한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조선 후기 소설에 있어서 백화 수용의 ‘양상’과 ‘수준’은 작가의 개성과 역량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각 소설 장르의 전통과 규범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각별히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작가가 전 생애에 걸쳐 추구한 새로운 문체 실험의 일환으로서 이해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심생전>의 경우에서 보듯이, 조선 후기 소설에 수용된 백화는 각 장르의 전통적인 서사 규범에 의해 일정한 제약을 받으며 각기 차등적인 수준으로 구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4. 구어(口語)의 기분을 내기 위한 수용: <장수과전>(張守果傳)

다음으로 고찰할 작품은 이현기(李玄綺, 1796-1846)의 <장수과전>(張守果傳)이다. 이 작품은 이현기가 1825년 무렵에 편찬한 야담집(野談集)인 『기리총화』(綺里叢話)에 실려 있는 야담계소설(野談系小說)이다.³⁰⁾

『기리총화』가 학계에 처음 보고된 것은 1997년이다.³¹⁾ 그런데 근래 새로운 선본(善本) 자료가 추가로 보고되었다.³²⁾ 거기에 수록된 작품은 총 148편으로, 이전에 소개된 이본(異本)들에 비해 수록된 작품의 편수가 상당히 많다.³³⁾ 그런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요청되는 중요한 새 작품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장수과전>이 그 중 하나다.

이 작품은 ‘장수과’(張守果: ‘과일 지킴이 장씨’라는 뜻)라는 특이한 별명을 지닌 주인공이 점점 망해 가는 과정을 그린 풍자소설이다. 장수과는 과

30) 이현기(李玄綺, 1796-1846)의 본관은 전의(全義)이고, 자(字)는 치호(稹皓)이며, 호(號)는 기리(綺里)이다. 그 가문은 조선 후기 소론(小論)의 명문가였으나, 자신은 벼슬을 하지 못하였다. 문집은 전하지 않으며, 1825년 무렵에 편찬한 야담집인 『기리총화』가 현전(現傳)한다. 김영진, 『『기리총화』(綺里叢話)에 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참조. 이 논문에서 『기리총화』의 편찬자 및 편찬 시기가 밝혀졌다.

31) 임형택, 『『기리총화』(綺里叢話) 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학사연구』 11(민족문학사학회, 1997) 참조.

32)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 58(대동문화연구원, 2007) 참조.

33) 현전하는 『기리총화』는 총 4종이다. 영남대학교 동빈문고에 소장된 ‘동빈본’,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연대본’, 연민 이가원 교수의 구장본(舊藏本)인 ‘연민본’, 임형택 교수가 소장한 ‘임형택본’이 그것이다. 이 중 선본(善本)은 ‘임형택본’이다. 이 책은 상(上) · 중(中) · 하(下) 3책으로 되어 있으며, 총 148편이 수록되어 있어 동빈본(총 83편), 연대본(총 69편), 연민본(총 38편)에 비해 수록된 작품 편수가 많다. 이승현, 『『綺里叢話』 연구』(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5~10면 참조.

일 장사로 생계를 꾸리는 인물이다. 그는 하루 빨리 돈을 벌어 결혼도 하고, 가문도 일으키고자 하는 일념으로 밤낮 쉬지 않고 과일을 지킨다. 이 때문에 ‘장수과’란 별명을 얻었다. 그런데 한 푼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 활터에서 한량들의 자리에 끼어 매일 음식을 얻어만 먹다가 미움을 사게 된다. 그리하여 류순정(柳順汀)이라는 못된 친구의 속임수에 걸려들어 모아 둔 돈을 다 날리고, 크게 망신을 당한다는 것이 그 줄거리이다.³⁴⁾

이상의 줄거리에서 보듯이 <장수과전>은 여러 모로 흥미로운 작품이다. 이 작품을 처음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한 임형택 교수는 <장수과전>의 몇 가지 서사적 특징에 대해 주목하였는데,³⁵⁾ 그 중 하나가 백화이다.

그렇다면 <장수과전>에서 백화가 수용된 양상이 어떠한지 다음 인용문을 통해 보자.

申晉璜道: “今日之事, 本出談諧, 如何怒氣相加? 日已西傾, 啖了些酒肉, 着意習射便了.” 衆人因轟音一飽. 生人酒豪, 綻了本質, 大笑道: “俺曆數許多名稱, 竟忘了一箇好題目.” 衆人道: “又將何等自誇處說了?” 生道: “不是自誇. 俺賣果自給, 每春夏結子, 晝宵看護, 里閤小兒們, 不能措手, 都叫做張守果.” 衆人大笑, 皆呼張守果.

신진황(申晉璜)이 말했다.

“오늘 일은 원래 재미나게 이야기하는 데서 나왔거든 어찌 서로 성내어 싸우려 든단 말이오? 날이 벌써 서쪽으로 기울었는데, 술과 고기를 나누어

34) 다만 <장수과전>은 원 자료의 끝부분이 결락된 상태이다. 그렇지만 현전하는 원 자료를 통해 작품의 줄거리 및 형식적·주제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

35) 임형택 교수는 <장수과전>의 서사적 특징을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주목하였다. 먼저 이 작품에 보이는 ‘주인공 망치기’의 과정이 <배비장전>과 유형적 상동성(相同性)을 지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기리총화』에 함께 수록되어 있는 <채생기우>(蔡生奇遇)와 비교할 때, 두 작품 모두 ‘물락양반’이라는 사회적 존재를 주제로 포착한 공통점을 지니되 <채생기우>는 ‘성취구조’를 취하고, <장수과전>은 ‘파멸구조’를 취한다는 점이다. 임형택 교수는 이 두 작품 모두에서 작가의 탁월한 솜씨를 느낄 수 있지만, ‘백화체’와 ‘평어’(評語)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장수과전>이 좀더 실험성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21~24면 참조.

먹고 활쏘기나 한판 합시다.”

여러 사람이 이에 배불리 먹으며 술을 실컷 마셨다. 장생(張生)은 술이 잔뜩 취한 기분에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희희 웃으며 말했다.

“내가 아까 나의 허다한 별명을 말했는데, 정작 좋은 별명 한 가지를 잊고 말하지 않았구려!”

못 사람이 나서서 물었다.

“또 무슨 자랑거리가 있단 말ियो?”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나는 과일을 팔아서 생계를 꾸려 가는데 매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과일이 익어 가면, 낮이나 밤이나 땅을 서서 동네 아이들 손대지 못하게 지키지요. 그래서 모두들 나를 ‘장수과’(張守果)라고 부르다오.”

못사람이 크게 웃으며 다들 그를 ‘장수과’라고 불렀다.³⁶⁾

인용문은 <장수과전>의 앞부분이다. 장수과는 활터에 찾아갔다가 거기에 모여 있는 한량들과 입씨름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신진항(申晉穰)의 중재로 서로 화해한 뒤 함께 먹고 마시며 어울리는데, 그때 술에 취한 주인공이 ‘장수과’라는 자기의 별명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형택 교수는 야담의 한문이 본래 일반 고문과는 다른 ‘조선식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어와 구어의 불일치라는 숙명적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바, 이런 모순에 대하여 이현기라는 작가가 제시한 하나의 해결책이 바로 <장수과전>에 구사된 백화체라고 해석하였다.³⁷⁾

이는 <장수과전>의 장르적 특징과 긴결(緊結)된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된다. 잘 알다시피 ‘야담(野談)’이란 원래 시정(市井)을 중심으로 민간(民間)에서 구연(口演)되던 이야기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정착된 것이다. 그래서 야담에는 전설(傳說), 민담(民譚), 소화(笑話) 등 다양한 장르의 서사가

36) 원문은 이현기, <張守果傳>, 『한문서사의 영토 2-실사와 허구 사이』(임형택 편역, 태학사, 2012), 502면. 번역문은 같은 책의 308~309면을 참조하되 인용자가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37)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23면 참조

포괄되어 있는데, 그 중 소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야담계소설’이다.³⁸⁾ 이에 야담계소설에는 태생적으로 민간의 언어와 상층의 언어가 혼성(混聲)되어 있다. 또한 상층 문인에 의해 약간의 윤색이나 수식이 가해져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담계소설은 종종 구기(口氣)가 느껴지는 독특한 문체를 지닌다.

아마도 이현기는 이와 같은 야담계소설 고유의 문체적 특징을 예민하게 포착하였던 듯하다. 그래서 그는 <장수과전>에서 구어(口語)의 기분을 좀더 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백화를 구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⁹⁾

그런데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장수과전>의 백화 수용 양상은 앞에서 고찰한 <천군기>나 <심생전>의 경우와는 판이하다. 이 점에서 <장수과전>의 백화는 그 존재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이 구사된 ‘양상’ 및 ‘수준’과 관련하여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천군전>이나 <심생전>에서 고문이 주가 되고 백화가 부분적으로 수용된 것과 달리, <장수과전>에서는 작품 전편에서 백화가 비교적 전면적으로 구사되었다. 예를 들어 조사 ‘了’를 활용한 백화투의 구문은 <천군기>에도 있었지만, <장수과전>에서의 활용 빈도가 훨씬 높다. 또한 대화를 인용할 때, 고문에서는 ‘~曰’이라고 하지만 백화에서는 ‘~道’라고 하는데, 앞의 인용문에서 보듯 <장수과전>에서는 “申晉璜道”, “衆人道”, “生道” 등의

38) 야담은 중국이나 일본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장르로 17세기 전반기에 성립되어 18, 19세기에 발전해 갔다. 중국의 풍토에서라면 한국의 야담은 대개 문언단편소설(文言短篇小說)의 일종으로 간주될 터이다.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돌베개, 2008), 72~73면 참조.

39) <장수과전>은 한글소설이 아니라 한문소설이므로 구어의 기분을 낸다는 데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작품의 백화 구사는 여타의 한문소설과는 다르게 주로 인물 간의 대화 장면 등에서 좀더 생동감 있는 문체를 보여준다. 이소영의 연구를 참조하면, 본래 ‘문언’(본고의 용어로는 ‘고문’-인용자)은 “簡而有法”의 규범에 따라 대개 서사를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비하여, ‘백화’는 “支離鄙俚”한 성향에 따라 대개 좀더 절제되지 않은 방식으로 서사를 확장하여 전달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소영, 『전통시기 中國의 書面語와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白話의 발생과 小說의 변화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15~225면 참조. 그러므로 <장수과전>이 한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구어의 기분을 내는 것은 작품 전편에서 비교적 전면적으로 구사된 백화에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경우 ‘구어의 기분’이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것이다.

‘~道’ 문투가 일관되게 구사되었다.

이처럼 <장수과전>에서 백화가 비교적 전면적으로 구사된 데에는, 당시 조선의 문인들이 즐겨 읽은 백화소설의 문체적 영향이 컸으리라 추정된다.⁴⁰⁾ 특히 그 중에서도 백화가 전면적으로 구사된 작품으로 평가받는 <수호전> 같은 백화소설이 주목된다. 당시에 <수호전>이 얼마나 애독되었는지는 <수호전>의 백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돕는 공구서인 『수호전 어록해』(水滸傳語錄解)가 별도로 제작된 데서 잘 알 수 있다.⁴¹⁾ 조선의 문인들은 『수호전 어록해』를 곁에 두고 <수호전>을 읽은 것으로 추정되며, 현전하는 『수호전 어록해』의 종류만도 30종 가까이나 된다.⁴²⁾ 이 점에서 ‘~道’라는 문투를 활용한 <장수과전>의 대화 인용 방식이, <수호전>과 같은 백화소설의 대화 인용 방식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⁴³⁾ 흥미로운 점은 17세기 전반기에 창작된 <천군기>의 문체가 <삼국지연의>와 같이 백화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백화소설의 문체와 좀더 가까운 데 비해,⁴⁴⁾ 19세기 전반기에 창작된 <장수과전>의 문체는 <수호전>과 같이 백화를 전면적으로 사용한 백화소설의 문체와 좀더 가깝다는 사실이다.⁴⁵⁾

40)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한국편』(아세아문화사, 2000)의 제2부 ‘국내 소장된 중국고전소설의 판본 현황’(231~314면)을 보면,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다수의 명청대 백화소설을 즐겨 읽은 것으로 추정된다.

41)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수호전> 애독의 중요한 한 사례로서 18세기 문인 유만주(俞晩柱, 1755-1788)의 경우가 참조된다. 『俞晩柱의 <水滸傳> 讀法』, 『한국한문학연구』 48(한국한문학회, 2011), 392~434면 참조.

42) 유춘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2~60면; 69~85면 참조.

43) 문체의 비교를 위해 <수호전>(水滸傳) 제1회 ‘張天師祈禳瘟疫, 洪太尉誤走妖魔’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洪信領了聖敕, 辭別天子, 不敢久停. 從人背了詔書, 金盒子盛了御香, 帶了數十人, 上了鋪馬, 一行部從, 離了東京, 取路逕投信州貴溪縣來. (….) 洪太尉便問監宮真人道: ‘天師今在何處?’ 住持真人向前稟道: ‘好教太尉得知, 這代祖師號曰虛靖天師, 性好清高, 倦于迎送, 自向龍虎山頂結一茅庵, 修真養性. 因此不住本宮.’ 太尉道: ‘目今天子宣詔, 如何得見?’” <水滸傳>(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5면.

44) 문체의 비교를 위해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제1회 ‘宴桃園豪傑三結義, 斬黃巾英雄首立功’의 일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玄德曰: ‘我本漢室宗親, 姓劉, 名備. 今聞黃巾倡亂, 有志欲破賊安民, 恨力不能, 故長歎耳.’ 飛曰: ‘吾頗有資財, 當招募鄉勇, 與公同舉大事, 如何?’ 玄德甚喜, 遂與同入村店中飲酒.” 羅貫中, <三國演義>(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3면.

한편 『기리총화』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백화가 가장 많이 구사된 작품은 <장수과전>이지만, 다른 작품에서도 백화가 부분적으로 구사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채생기우>(蔡生奇遇), <포주이문>(抱州異門), <천비식인>(賤婢識人), <송반궁도우구복>(宋班窮途遇舊僕) 등의 작품에서도 백화가 구사되었다. 그 중 <채생기우>의 경우를 일례로 보면, 다음과 같이 주로 대화 장면에서 백화가 구사되었다.

· 兎隷團團圍, 禮曰: “**小的**家令公, 奉邀郎君, 願速上馬.”

노속들이 뺨 둘러싸더니 예(禮)를 갖춰 말했다.

“**소인** 님 영감님께서 서방님을 모셔 오라합니다. 어서 말에 타십시오.”

· 居無何, 父厲責而入曰: “豚犬尙不覺睡, 何暇**讀**了一字?”

이윽고 부친이 꾸중하며 들어와 말했다.

“이 돼지·개 같은 녀석아, 아직도 자고 있다니, 어느 겨를에 글 한자나 읽겠느냐?”⁴⁵⁾

인용문 중의 “**小的**”는 ‘나’를 뜻하는 백화로, ‘小人’이라는 말과 같다. 다음으로 조사 “**了**”도 백화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道’와 같은 구문은 보이지 않는다. 어찌면 이현기는 <채생기우>와 같은 몇몇 작품에서 백화의 효과를 시험해 보고, <장수과전>을 쓰면서 좀더 본격적으로 백화를 구사해 본 것은 아니었는지 조심스레 추정해 본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볼 때, <장수과전>은 앞 시기의 다른 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비교적 전면적인 방식으로 백화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45) <삼국지연의>는 원래 문언(文言)으로 기록된 이야기를 속화(俗化)시키는 방식으로 창작되었으며, <수호전>은 애초부터 백화로 쓴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소영, 앞의 논문, 219면 참조). 그 결과 두 작품에서 구사된 백화의 ‘양상’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패트릭 하난 Patrick Hanan, 『중국백화소설』, 김진곤 역, 차이나하우스, 2007, 10~33면 참조). 필자는 <삼국지연의>와 <수호전>의 백화에 차이가 있듯이 <천군기>와 <장수과전>의 백화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6) 원문은 이현기, <蔡生奇遇>,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박희병 標點·校釋, 소명출판, 2005), 844면; 850면. 강조는 인용자의 것.

러한 양상은 백화소설의 열독(熱讀)과 같은 19세기 당시의 분위기와, 본래 구어적 속성을 지닌 야담계소설 장르의 내적 계기가 이현기라는 실험적 작가에 의해 결합됨으로써 빚어진 결과로 보인다. 요컨대 <장수과전>은 구어의 기분을 좀더 내기 위한 방편으로 백화를 수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5. 맺음말

백화는 조선 후기 소설의 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어떠한 양상으로 수용되었는가?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황중윤의 <천군기>, 이옥의 <심생전>, 이현기의 <장수과전>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백화 수용의 몇 가지 주요 국면과 의미를 탐구하였다.

<천군기>는 주로 대사(代詞)와 조사(助詞)를 활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백화를 수용하였다. 즉, 대체로 고문이 주가 되면서 백화가 혼입된 문체를 취하였다. 이와 같은 <천군기>의 백화 수용 양상은 작가 황중윤이 중국의 연의소설들을 탐독하고 그 제반 형식을 전용(轉用)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심생전>은 주로 두 자(字)로 된 단어를 활용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백화를 수용하였다. 본고에서는 <심생전>을 창작할 당시에 작가 이옥이 이미 백화 글쓰기에 능숙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점에서 <심생전>의 백화 수용은 한국 전기소설의 전통과 그 장르적 규범에 제약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아울러 <심생전>에 구사된 백화는 작가 이옥이 추구한 새로운 문체 실험의 일환으로서 해석되었다.

<장수과전>은 고문보다 백화가 주가 된다고 할 만큼, 비교적 전면적인 방식으로 백화를 수용하였다. 이와 같은 <장수과전>의 백화 수용 양상은 작가 이현기가 야담계소설 특유의 구어적 기분을 좀더 내기 위한 방편으로 백화 문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결과로 해석되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세 작품에 나타난 백화의 수용 양상 및 그 수준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으며, 덧붙여 다음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 수용은 17세기 전반기에 시작되어 19세기 까지 이어졌다.

둘째, 조선 후기 소설의 백화 수용은 연의소설, 전기소설, 야담계소설 장르 모두에서 나타났다.

셋째, 조선 후기 소설에서 백화 수용의 ‘양상’과 ‘수준’은, 작가의 개성과 역량에 의해, 아울러 각 소설 장르의 전통과 규범에 의해 일정한 영향을 받았다.

이상 본고의 고찰은 백화의 수용이 주목되는 세 편의 소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본고의 논의 결과를 조선 후기 소설 전반으로 확장하여 말하려면 좀더 폭넓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黃中允, 장회본(章回本) <天君紀>, 『逸史』,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 李鈺, <沈生傳>, 『完譯 李鈺全集 4』,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 李鈺, <沈生傳>, 『사랑의 죽음』, 박희병·정길수 역, 돌베개, 2007.
- 李玄綺, <張守果傳>, 『한문서사의 영토 2-실사와 허구 사이』, 임형택 편역, 태학사, 2012.
- 李德懋, <金申夫婦傳>, 『靑莊館全書』 권20, 『韓國文集叢刊』 257.
- 李鈺, <東廂記>, 『完譯 李鈺全集 4』,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 李鈺, <동상기>, 『完譯 李鈺全集 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 李鈺, 『一難』, 『俚言』, 『完譯 李鈺全集 4』,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 李鈺, 『일난』, 『이언』, 『完譯 李鈺全集 2』,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 李玄綺, <蔡生奇遇>, 『韓國漢文小說 校合句解』, 박희병 標點·校釋, 소명출판, 2005.
- 『正祖實錄』,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 羅貫中, <三國演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4.
- 施耐庵, <水滸傳>,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11.

2. 단행본

- 민관동, 『中國古典小說史料叢考-한국편』, 아세아문화사, 2000.
- 박희병, 『韓國 傳奇小說의 美學』, 돌베개, 1997.
-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 임형택·한기형 외 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후스(胡適), 『백화문학사』, 강필임 역, 태학사, 2012.
- 하난, 패트릭(Hanan, Patric), 『중국백화소설』, 김진곤 역, 차이나하우스, 2007.

3. 논문

- 김수영, 「<天君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1~157면.

- 김영진, 『『기리총화(綺里叢話)』에 대한 일고찰』, 『한국한문학연구』 28, 한국한문학회, 2001, 315~343면.
- 김영진, 『이옥 연구-가계와 교유, 명칭 소품 열독을 중심으로』, 『한문교육연구』 18, 한문교육학회, 2002, 341~366면.
- 김영진, 『李鈺 문학과 明清小品-신자료의 소개를 겸하여』,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355~387면.
- 김영진, 『朝鮮後期 明清小品 수용과 小品文의 전개 양상』,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07면.
- 김하라, 『俞晩柱의 <水滸傳> 讀法』, 『한국한문학연구』 48, 한국한문학회, 2011, 391~434면.
- 유춘동, 『<수호전>의 국내 수용 양상과 한글 번역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159면.
- 윤세순, 『16세기 중국소설의 국내 유입과 향유 양상』,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5, 134~162면.
- 이소영, 『전통시기 中國의 書面語와 글쓰기의 상관성 연구: 白話의 발생과 小說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1~277면.
- 이현우, 『이옥의 생애와 작품세계』, 『完譯 李鈺全集 1』,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편역, 휴머니스트, 2009, 10~33면.
- 임형택, 『『기리총화』(綺里叢話) 소재 한문단편』,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학회, 1997, 281~325면.
- 임형택, 『소설에서 근대어문의 실현 경로-동아시아 보편문어에서 민족어문으로 이행하기까지』, 『대동문화연구』 58, 대동문화연구원, 2007, 9~43면.
- 정용수, 『<동상기>의 성격과 조선후기 백화투 문제』,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2008, 991~1016면.
- 정하영, 『<沈生傳>의 題材의 脈絡과 敘事方式』,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293~322면.

Late-Joseon period novels' acceptance aspects of baihua(白話)

Kim, Sooyoung

This paper examined the late-Joseon period novels' acceptance aspects of baihua (白話) through Hwang, Jung-yoon's *Cheon-gum-gi*(天君紀), Yi, Ok's *Sim-saeng-jeon*(沈生傳), and Yi, Hyeon-gi's *Jang-su-gwa-jeon*(張守果傳).

First, *Cheon-gum-gi* accepted baihua partially using mainly pronouns and postpositional articles. *Cheon-gum-gi*'s baihua acceptance pattern was understood as resulting from the author Hwang, Jung-yoon reading the Chinese historical novels (演義小說) and creatively borrowing their various patterns.

Sim-saeng-jeon accepted baihua using mainly two-character combined words. *Sim-saeng-jeon*'s baihua acceptance pattern was understood as resulting from a significant limitation due to traditional Korean chuanchi novels(傳奇小說)' tradition and its genre norms. Furthermore, baihua, conversed in *Sim-saeng-jeon*, was understood as part of the author Yi, Ok's life-long pursuit for literary style experiments.

In addition, *Jang-su-gwa-jeon* featured more baihua sentences than wenyan(文言), accepting baihua entirely. Its baihua acceptance pattern was understood as resulting from the author Yi, Hyeon-gi positively using the literary style of baihua novels such as Suhojeon(水滸傳) in order to exude the colloquial mood particular to yadamgye novels(野談系小說).

The findings of this study on the late-Joseon period novels' acceptance of baihua are outlined as follows.

First, late-Joseon novels' baihua acceptance continued from the first half of the 17th century to the 19th century.

Second, late-Joseon novels' baihua acceptance was confirmed in all genres of historical novels, chuanchi novels, yadamgye novels.

Third, late Joseon novels' baihua acceptance level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not

only by authors' capabilities and characters, but also by the tradition and norms of various novel genres.

keyword : baihua(白話), wenyan(文言), *Cheon-gun-gi*(天君紀), *Sim-saeng-jeon*(沈生傳), *Jang-su-gwa-jeon*(張守果傳)

접수일자: 2014. 3. 31.

심사기간: 2014. 3. 31~2014. 5. 10

게재결정: 2014. 5. 10.